

2. G7 頂上 會談의 評價

- (G7 聲明 內容) 早期 警報 및 非常 救濟 金融 制度 도입 등 IMF 기능의 강화 및 IMF와 세계 은행의 유사 기구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함
- (聲明 內容의 評價) 조기 경보 및 긴급 구제 금융 제도에는 회원국들의 IMF 경고 무시와 구제 금융 기금 출자 기피의 문제점이 있음
- (餘他 討議 內容의 評價) 국제 금융 시장의 안정책으로 토의된 「토빈稅」, 「換率 變動帶」 및 「國家 破産 制度」는 채택되지 않았음
- (國際 金融 市場에 대한 影響 및 對應策)
 - 현재의 엔高, 달러低, 마르크貨 강세, 여타 유럽 통화 약세 및 단기 투기성 자금으로 인한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임
 - 우리는 엔, 마르크貨의 보유를 증가시키고 先物換 등 派生 金融 商品의 적극 활용을 통해 환율 급변 위험에 대처해야 하겠음
 - 환율 안정만을 위주로 거시 경제 정책을 운영해서는 안되며 금리 및 물가 안정, 건전 재정, 국제 수지 균형 등 균형 잡힌 정책을 시행해야 함

조기 경보 및 비상 구제 금융 제도로 IMF의 기능 강화

- (G7 聲明 內容) Halifax G7 정상 회담의 공식 성명은 국제 금융 위기의 예방을 위한 IMF 기능의 강화 및 국제 금융 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IMF와 세계 은행의 유사 기구를 통합하는 것이 골자임
 - IMF 기능 강화안에는 외환 위기의 예방·관리 제도로 조기 경보 제도 및 비상 구제 금융 제도가 포함됨
 - 조기 경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
 - ① IMF가 회원국에 주요 경제 지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의 대외 공개 권한을 가지며
 - ② IMF는 경상 수지 적자, 외채 등 경제 지표상 위기의 조짐을 보이는 회원국에 대한 강력한 정책 수정 권고 및 不應時 자금 지원 중단 등 제재 권한을 가짐
 - 비상 구제 금융 제도는 IMF가 통화 위기에 봉착한 국가에 긴급 구제 자금을 지원하는 것임
 - ① 비상 구제 금융 기금의 재원으로 일반 차입 협정 (GAB)의 출연 기금을 현재의 265억 달러에서 두 배로 증액

IMF와 세계 은행의 유사 기구 통합과 지역 개발 은행의 육성

- ② GAB 기금 증액을 위해 현재 출자국인 G10 (선진 10개국) 이외에 한국 등 재정 부담 능력이 있는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들을 포함할 것을 검토
- 국제 금융 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IMF와 세계 은행의 유사 기구를 통합하고 지역 개발 은행간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함
 - 세계 은행(World Bank)의 IBRD(국제 부흥 개발 은행)의 기능을 축소하고 ADB(아시아 개발 은행)와 같은 지역 개발 금융 기관을 육성함

조기 경보 및 구제 금융 제도에는 회원국들의 IMF 경고 무시 및 출자 기피 문제가 있음

- (聲明 內容의 評價) IMF의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제안된 조기 경보 제도 및 비상 구제 금융 재원 확대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
 - 대부분의 회원국이 IMF의 정책 권고 및 경고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감시 체제 강화에는 한계가 있음
 - 멕시코의 경우에도 IMF가 93~94년의 기간중 통화의 과대 평가에 대해서 수차 경고하여 거시 경제 정책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기를 초래
 - 위기 발생시 필요한 긴급 구제 지원 자금의 확충을 위해 현재 265억 달러의 일반 차입 협정 (GAB) 기금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데 IMF 회원국들이 출자를 기피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

토빈세는 단기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환율 급변을 예방

- (餘他 討議 內容의 評價) 국제 외환 시장의 환율 불안정에 대한 개선책으로 토의된 「토빈稅」, 「換率 變動帶」 및 「國家 破産 制度」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음
 - 노벨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「토빈세(Tobin tax)」란 단기성 국제 외환 거래에 거래액의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거래액을 줄임으로써 단기적인 환율 급변을 예방하자는 제안임
 - 문제점은 1) 세계 모든 국가들이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 회피를 불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, 2) 미국에서의 실증 분석 연구에 의하면 유사한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오히려 환율 변동이 더욱 급

**환율 변동대는
주요국 환율을
일정한 범위내에
서 조정**

**국가 파산 제도는 IMF가 국제
파산 법원의 역할
을 담당**

**우리는 환율 불안
지속에 엔·
마르크화 보유
확대, 파생 금융
상품 활용,
균형 잡힌 거시
정책 시행으로
대처해야 함**

- 격해 질 수 있다는 데 있음
- 미국 국제 경제 연구소(IIE)의 존 윌리엄슨 등이 주창한 「환율 변동대(flexible exchange rate band)」는 주요국 통화 사이의 환율이 정해진 범위내에서만 변동하도록 각국 중앙 은행이 시장 개입 및 금리 조정을 하자는 것임
 - 환율 변동대는 현재 유럽 통화 제도(EMS)의 환율 조정 장치(ERM)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데 마르크貨 대비 여타 유럽 통화의 약세 지속으로 인한 환율 불안정으로 그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임
 - 하버드大의 제프리 섉스 교수가 제안한 국가 파산 제도는 IMF가 국제 파산 법원의 역할을 맡아 지급 불능 상태에 처한 국가에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를 일시 동결하며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여 금융 위기를 차단하자는 것
 - 멕시코 등 외채 문제가 심각한 중남미 국가를 이웃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G7의 여타국들은 이 제도가 개도국 등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조장할 가능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음
- (國際 金融 市場에 대한 影響 및 對應策) IMF는 향후 획기적인 새로운 제안을 채택하는 대신 건전한 巨視 정책과 정보의 適時 공개를 장려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현재의 환율 불안정은 지속될 전망
- 현재의 엔高, 달러低, 마르크貨 강세, 여타 유럽 통화 약세 및 단기 투기성 자금(hot money)으로 인한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
 - 우리는 엔, 마르크貨의 보유를 증가시키고 先物換 등 派生 金融 商品의 적극 활용을 통해 환율 급변 위험에 대처해야 하겠음
 - 거시 경제 정책을 멕시코의 경우처럼 환율 안정만을 위주로 운영해서는 안되며 재정 건전화, 금리·물가 안정, 국제 수지 균형 등 균형 잡힌 거시 정책을 시행해야 함

(전 상 준)